

<2011년 9월 14일 수요일말씀>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시며 130억 년 이상 역사하셨다

본 문 창세기 1장 1-5절

누가복음 9장 25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주님은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1년 걸린 작품보다 10년 걸려 만든 작품은 그 값이 10배나 더 비쌉니다. 세계적인 화가 루시안 프로이트가 그린 한 살찐 여성의 누드화는 2008년에 약 351억 원에 팔렸습니다. 2011년 그는 죽었지만, 2008년 생존해 있을 당시 그 누드화는 생존 화가의 작품 중 세계 최고의 판매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사람이 그린 그림도 이렇게 비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얼마나 가치 있고 비싸고 귀한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130억 년 이상 우주와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연구한 것만 쳐도 우주가 시작된 지는 약 137억 년이 되었고, 지구와 천지 만물이 시작된 지는 약 45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우주 만물을 창조했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은혜를 갚고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영원토록 그 가치를 알고 구원받고 살아야 은혜를 갚습니다. 애인 되고 신부 되어 사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빼고, 인간이 원시인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달되기까지는 4만 년 이상이 걸렸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시기 위해 먼저 우주와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그 차원을 높이고 발달시키기까지 130억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삼위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히 보고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창조자를 멀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같이 오랜 시간을 들여 인간을 창조하심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영’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영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 값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가치를 아시니 “인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귀한 몸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귀한 것을 귀하게 쓰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하시며 “그 가치를 말해주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너희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쓰려면 인생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도 잘되고, 육신의 행함을 통해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설교 내용을 영상으로 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말한 것으로 우주부터 창조해 나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6000년 전 아담과 하와 때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전 인류 역사의 과정을 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종교의 시조’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인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전에는 인간이 너무 발달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인식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기에게는 학문을 넣지 못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아기에게는 이성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과일나무도 작을 때는 안 지킵니다. 커야 누가 열매를 따 먹을까 봐 지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능과 생각이 무지한 때에는 종교를 넣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인간을 발달시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까지 발달시키시고 그때부터 종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영상1>

① 세계적인 화가 루시안 프로이트의 한 살핀 여성의 누드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의 모습

<자막과 설명> 사람이 그린 그림도 350억 원이나 하는데, 하나님은 130억 년 이상에 걸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을 값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비싼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② 우주 - 태양계 - 지구 - 인간의 역사 (고생대 - 중생대 - 신생대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막과 설명>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먼저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130억 년 이상이 걸렸습니

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후, 원시인에서 현재 모습으로 발달되기까지 4만 년 이상이 걸려 오늘날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③ 인간의 영 → 구원 → 천국

<자막과 설명> 이같이 오랜 시간을 들여 인간을 창조하심은 ‘영’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영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자막> 사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영원히 가치 있게 쓰자.

하나님은 130억 년 이상 걸려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게 수한을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100년의 기간은 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시켜 영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부활시키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100년이면 충분하니 인생 100년을 한계로 정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컨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외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부활되면 나비로 살기에 애벌레 기간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비가 되어 살면 1000배나 빠르고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게 되니 어서 나비가 되면 됩니다.

인간도 한정된 기간을 지나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때에 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 아래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의롭게 삶으로 그 행실에 따라 영혼을 하늘나라 형체로 부활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된 영혼은 영원히 천지를 날면서 빛보다 더 빠르게 다니면서 차원 높게 살게 됩니다.

영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만들어진 것을 두고 ‘영이 부활됐다.’ 합니다. 부활된 영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듯, 그 영이 하늘나라의 영이 되어 빛보다 더 빠르게 날아다닙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

으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빛도 이렇게 빠르는데, 영혼은 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년이 걸리는데, 우주 밖에 있는 천국까지 가려면 빛으로 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가면 지구에서 천국까지 가는 데 잠깐이면 됩니다. 선생이 가 보니 느낌으로 20분 정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몇 억 배나 빠르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몇 배 빠르니 계산하는 사람은 수학 천재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천재도 한 주일 동안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킁킁) 실상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영상2>

① 갓난아기-유아기-소년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죽음

<자막과 설명> 인간이 계산한 역사로 130억 년 이상 걸쳐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은 겨우 인생 100년만 살고 죽게 그 수한을 정하셨습니다.

② 애벌레 기간 | 나비로 부활

인생 100년 | 영 구원 (영 부활)

<자막과 설명> 애벌레에게는 나비로 부활되는 기간만 필요하지, 애벌레로 사는 기간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 인생 100년은 애벌레 기간과 같습니다. 인생 100년이면 자기 육신의 행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부활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③ 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것 → 영 구원 (영 부활) / 빛보다 더 빠르게 다니는 영

<자막과 설명> 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면, 육의 행실에 따라 영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형체로 부활됩니다. / 구원받아 부활된 영은 빛보다 더 빠르게 다닙니다.

니다. 빛으로 150억 년 가는 우주의 거리를 영으로는 10분 안에 갑니다.

④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영계는 생각 실상의 세계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한 곳에 생각이 가듯이, 부활된 영은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원하는 곳에 갑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을 이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기까지 45억 년 이상이 걸렸고, 우주를 창조하기까지 137억 년이 걸려서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인생은 100년이 정해진 한계입니다. 이 기간은 자기 영을 구원하느냐, 못 하느냐, 그에 따라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사망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끝나느냐, 그 운명이 좌우되는 지구 세상의 인생 기간입니다. 인생 100년 동안 전심을 다해 오직 영을 구원해야 됩니다.

인생 100년이라 하지만, 그것도 나이가 들면 늙기도 하고 할 일이 많아져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그러니 공적을 쌓기도 힘듭니다. 고로 영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선생같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10대 때가 정말 좋은 황금기입니다. 20대 때는 그다음 전성기입니다. 30대 때까지 괜찮긴 하지만 이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목숨 걸고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기 영혼을 위해 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하면 경험도 있으니 잘할 수도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 40대가 넘으면 인생이 오후 시간이 되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저마다 자기 영혼을 최고로 만들기 바랍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영혼을 만든 대로 천국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한 번 위치가 정해지면 영원히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같은 천국이라도 좋은 지역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황금 세계이지만, 수십억 광년 멀리 떨어진 곳은 보통입니다.

“세상에서 취직 못 했다. 섭리사에서는 할 일이 없다. 사명이 없다.” 하며 놀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주님과 같이 행하여 공력을 세우고 육도 잘되게 하고 영도 온전히 빛나게 구원해 봐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영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같이 그 영이 사망으로 넘어가서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선생은 지옥에 갔다 왔기에 그 실상을 알고 애간장을 태우며 말해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45억 년이나 걸려서 지구를 만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공력과 사랑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깨부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만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 비싼 인생을 가지고 값없이 못되게 살았으니 사망 지옥으로 가도 씁니다.

인생 일평생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수백 번씩 양심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만물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안 믿고 자기 좋은 대로 먹고 입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또한 믿더라도 제대로 잘 믿으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해 줘도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형식으로 믿었으니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사망의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매일 두려움과 기쁨과 희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섭리사에서도 처음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성으로 타락되고 이성으로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생이 너무도 오랫동안 기도해 주고 관리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가치를 깨부순 자들은 구원하고 싶어도 껄썌해서 그냥 봐줬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들은 사망이 삼킨 자들로서 지상에서 수년 썩 산지옥의 고통을 당해 봐야 스스로 돌아오든지 합니다. 돌아오더라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게 되고, 섭리사 뒷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영과 육을 위해서 그렇게도 사랑을 주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며 살아 주셨는데 주님을 외면하고 차갑게 제 갈 길을 간 자들은 주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이 어디 있는지 영계에 가 보면, 사탄이 잡아가서 고통을 주며 ‘66’을 찍어 놓고 “6 하나만 더 찍으면 영원히 지옥의 영이 된다. 영원히 내 것이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을 구하느니 다른 사람을 구하자.” 하고 나옵니다.

<영상3>

- ① 인생 100년 정해진 기간 / 자기 영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모습

<자막> 인생 100년은 정해진 기간이다. / 이 기간은 자기 영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운명이 좌우되는 기간이다. / 인생 100년 동안 전심을 다해 자기 영을 구원해야 한다.

- ② 10대 - 20대 - 30대 - 40대...

<자막과 설명> 10대는 순금, 24K 값입니다. 20대는 18K 금값으로 떨어집니다. 30대는 14K 금값으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영적으로 살아야 황금빛을 냅니다. 40대는 은 값입니다.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 오후 시간이 되어 시간이 빨리 가고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 ③ 해당 영상 / 지옥 모습 / 선생님 지옥 갔다 온 모습

<자막과 설명>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구 세상은 자기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인생 영원한 길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 지옥에 갔다 오면 정신 차리고 잘할 것입니다. / 선생은 지옥에 갔다 오고 혀를 빼고 흔들었습니다. 지옥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 ④ 선생 지옥 구경

- 악평한 자들의 영혼 “왜 나를 그리도 괴롭혔느냐.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도 기도해 주었는데 보람도 없다. 너 지옥에 온 줄 알았

으면 그렇게 애태우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야.”

- 사탄이 선생의 살을 칼로 회 치듯 하는 모습

<자막>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의 기간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형체로 부활시키는 기간이다.

어젯밤 꿈에 주님은 큰 과수원을 보여 주셨습니다. 과수원의 배경은 월명동이었습니다. 과수원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잎이 싱싱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 때였습니다. 과일나무들도 컸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안 익은 상태였습니다. 일하는 자들이 모두 깊이 웅덩이를 파고 과일나무에 물과 거름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선생은 말했습니다.

“왜 나무에 열매가 안 열렸지요?”

이때 내 옆에서 흰옷을 입고 서 있던 자가 말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나무 끝에 새순이 한 번 더 올라와야 새순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데, 이때 물과 거름을 줘야 2차로 새순이 솟아납니다. 2차로 새순이 나와 열매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때 전에 부지런히 거름하고 물을 주어 새순이 나와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열게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과수원 앞쪽으로 나오니, 맨 앞에 한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핀 꽃을 보니, 지상에서는 그렇게 큰 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꽃이 분홍색과 청색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꽃 속에 아주 큰 참외 크기만 한 열매가 크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못 봤던 열매였습니다. 잎사귀는 고무나무 잎같이 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과일나무도 다른 과일나무처럼 똑같은 나무다. 모두 이 나무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어야 된다. 왜 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도 열었겠느냐. 보아라.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느냐.”

이 나무는 과수원 맨 앞에 있는 나무로 표상적인 나무였습니다. 선생은 내 옆에서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자와 함께 열매 없는 과일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들에게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2차로 새순이 나서 저 표상적인 나무처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주렁주렁 열매를 연 나무를 보고 자기들도 저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나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나뭇대로 크고 있는데, 물과 퇴비가 부족해서 제2차로 새순이 솟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를 보고 생각하기를 ‘이 나무들은 참 바보 같다. 자기도 똑같은 나무인데 왜 표상의 나무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려고 하지 않지? 왜 표상 나무와 같이 못 하지? 같은 나무니까 똑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크고 있구나.’ 했습니다.

1차는 새순이 나왔는데 2차는 새순이 못 나온 이유는 물과 퇴비가 부족함 때문인데, 물과 퇴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물과 퇴비’는 첫째, 예수님의 육신이 된 자를 깨닫고 늘 증거하는 일을 말하며, 그의 심정을 받는 일임을 은밀히 깨달았습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한 단계 더 깊이 기도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과수원 전체에서 열매를 연 나무를 보니 신비한 열매가 주렁주렁 꺾차게 열려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서 기도하니, 주님은 “오늘 나의 계시를 전하여라.” 하시어 전초에 넣어 말씀했습니다.

<영상4>

① 해당 영상

<참고> 열매를 못 연 나무들의 모습 : 잎이 크고 싱싱하지만 물이 없어 시들거리고 거름을 받지 못하여 약해진 모습 / 열매 없는 나무에 거름을 주려고 땅을 깊이 파 놓은 모습

열매를 연 한 나무의 모습 : 꽃이 열매를 싸고 있는 신기한

모습 /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다.

<자막과 설명> 꿈에 주님은 큰 과수원을 보여 주셨습니다. 과수원은 성지땅 월명동이었습니다. / 과수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2차 새순이 나와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데, 모두 1차 새순까지밖에 안 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그중 맨 앞의 나무만 2차 새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그같이 큰 꽃과 신비한 열매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②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맨 앞의 한 나무만 빼놓고 다른 나무들이 2차로 새순을 내지 못한 이유는 물과 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③ 해당 영상 (물과 퇴비가 무엇인지 보여 주기.)

<자막과 설명> 물과 퇴비는 첫째, 예수님이 보낸 자를 깨닫고 증거하며 그의 심정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입니다. 셋째,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 단계 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④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2차 새순이 나와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차원 더 높이면 열매를 열게 된다고 그 입장을 보여 준 것입니다. / 모두 2차 새순이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신비한 열매를 맺은 표상 나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이 같은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5>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알아야 그제야 정신 차리고 인

생을 귀히 여기고 귀히 쓰게 된다. 자기가 전도해 온 자를 보통으로 대하다가 누가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다. 그가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다.” 하면 다시 대할 것이다. 또한 자기가 산 땅이 금값이라고 하면 달리 보고 좋아하며 대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너희 인생을 달리 보고 귀한 것을 깨닫고 행해야 한다.

‘자기’라는 존재는 개성으로 볼 때 세상에서 딱 한 명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130억 년 이상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려면 수십만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수십만 가지 조건을 다 갖춰 이 땅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같이 만든 인간임을 깨닫고 귀하고 가치 있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된다.

귀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 외에는 천하에 인간을 영원히 귀히 쓸 자가 없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 모른다. 너희는 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나 예수를 진정 사랑하며, 창조자에게 감사하며, 너희 인생을 가치 있게 쓰기 바란다.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영을 확실히 구원하여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 놓지 않고, 영계에 가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상에서는 나 예수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첫사랑 하여 모든 것을 다 줄 때처럼 너희를 신경 쓰지만, 이 세상에서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들의 영이 영계에 가면 나 예수가 그같이 안 한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해 줬는데도 만왕의 왕이며 구원자인 나 예수를 경히 대하고 외면하고 세상만 즐겨 살았기 때문이다. 나 예수를 가치 없이 대한 연고이다. 이런 자는 신뢰를 잃은 자요, 기회를 잃은 자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라. 너희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아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보낸 자를 나의 육으로 쓰면서 너희를 애인같이 대해 주지 않느냐. 영계는 육계가 아니다. 그곳은 나의 육이 없다. 육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정신 차리고 땅에서 내가 보낸 나의 육을 통해 너희를 잘 대해 주며 지극히 사랑해 줄 때 구원을 온전히 이뤄야 된다.

이 시대에 내가 보낸 내 육의 상징은 너희 선생뿐이다. 나는 그를 나의 육으로 삼고 새 역사를 시작했다. 너희 선생은 시대 새 말씀이 나오도록 내 앞에 조건이 돼 주었다. 너희는 그를 통해 내 모습을 보기도 하지 않느냐. 오늘도 너희 선생을 통해 창조주께서 인생을 귀히 창조했다는 말씀을 전하며 인생 시간을 어떻게 쓰라고 말해 주고 있지 않느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은 모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에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영웅 열사를 따르는 이유는 다른 자와 다르니까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도 다른 자와 다르니 따라가는 것이다. 그를 통해 나 예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고로 내가 보낸 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눈을 떠서 그를 통해 준 나의 말을 깨닫고 나 예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된다. 너희가 내가 보낸 자를 믿지 않으면 내가 그를 통해 전한 말을 믿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따랐다가 모세가 어떤 자인지 확실히 모르고 악평하며 막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고 끝났다. 모세를 악평하지 않은 자들의 후손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 예수는 내가 보낸 자의 육을 통해 나타나 구원 역사를 한다. 그를 통해 하나님과 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고 시대 복음을 떠 나간다. 내게 배우지 않으면 나를 모른다. 고로 내가 보낸 자를 가르쳐 나를 온전히 알게 하고,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 나 예수에 대해 가르치게 한다.

섭리사의 자부심은 선생이다. 선생이 없으면 섭리역사가 다른 역사와 무엇이 다르냐. 너희 선생을 못 만났을 때 너희는 기성이나 세상과 똑같이 주장하며 살지 않았느냐. 섭리사에 왔으니 선생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르쳐 주어라.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이 자기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내가 보낸 선생에 대해 안 가르치면 모두 나와 멀다.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보낸 자를 가르쳐야 함은 나는 내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내 보내기 때문이다. 고로 내가 보낸 자를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그를 통해 깊은 말씀을 보내어, 너희가 나 예수와 바로 통하게 된다. 너희 선생을 통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 시대에 행했는지 알아라.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먼저는 육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낸 자의 육을 통해서 너희 육과 함께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 그로 인하여 너희 영혼도 변화를 이루게 한다. 그다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령한 영체인 나 예수가 뜻을 이룬다. 너희 육이 행함으로 영혼의 변화를 이루고 예비해야, 신령한 자 나 예수의 재림 때 나를 맞는다.

내가 너희 선생에게 보인 과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나 예수는 주인이다. 선생은 과수원지기다. 과일나무는 신비한 신부 나무로서 섭리인들을 말한다.

마지막 새순이 나와야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연다고 보여 주었다. 깊이 파고 물과 퇴비를 줘야 된다. ‘퇴비’는 말씀이다. ‘물’은 깊은 기도, 은혜, 성령의 역사, 내가 보낸 자를 바로 알고 증거하며 나와 일체 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보낸 자의 심정을 받아야 나 예수의 심정도 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과수원의 과일나무들 중의 한 나무만이 신비한 꽃을 피우고 신비한 열매를 열었는데, 그 나무는 너희 중에 세운 표상이다. 그와 같이 행해야 너희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연다함이다. 내가 이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 주었다. 고로 내가 설명하고 풀어 주는 것이다.

올해 대역사는 자기가 귀한 것을 아는 것이다. 너희는 항상 표상자를 보고 따라 하여라. 각자 표상자를 보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 새순이 나고 열매를 연다. 보이는 자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나 예수가 표상을 세우고 그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표상은 오직 나와 너희 선생이 시키는 대로만 행하며 나와 선생의 심정을 표현하니, 너희가 그를 보고 행해야만 나 예수와 너희 선생이 함께 하여 잘된다. 무용수들이 앞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 배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의 표상을 보고 따라 해야 배울 수 있다. 그래야 세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연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나 예수가 어디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아라. 나는 내가 보낸 자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세운 표상과 함께한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대성공한 자다.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실패자다. 너희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어라.

사탄들이 너희 영과 육을 괴롭히고 각종으로 찌른다. 거의 사탄의 영이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사람을 쓰고 간접적으로 괴롭힌다. 항상 여우 쫓듯이 사탄을 다스리며 쫓아내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네 입의 겹으로 싸우고 사탄을 쫓아 없애며 행해야 제대로 행할 수 있다. 사탄은 너희가 나의 생명의 말씀을 못 지키게 역사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면서 역사하니 굳세게 마음먹고 행하여라.

너희를 위해 말씀한 주 예수다. 샬롬!

<영상6>

① 지구 세상 : 예수님께서 중심자의 육을 쓰고 나타나 역사하신다.

영의 세상 : 중심자의 육이 없으니 영 자체로 크다.

예수님도 잘 못 만난다. 소식도 말로 가끔 듣는다.

<자막과 말씀> 세상에서는 나 예수의 육신으로 쓰는 ‘중심자’가 있어

서 그를 나의 육으로 쓰면서 너희를 마음껏 애인같이 대해 준다. 그러나 너희 육이 죽고 영계에 가면 그곳에는 중심자의 육이 없으니 영자체로 커야 된다. 영계에서는 나 예수도 땅에서처럼 못 만난다. 땅의 섭리와 영계의 섭리는 다르다. 너희 육신이 이 땅에서 살 때가 영을 만들고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②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이 시대에 나의 육으로 쓰기 위해 보낸 자는 섭리역사에만 있다. 나는 내가 보낸 자의 육을 통해 나 예수의 뜻을 전하고 구원 역사를 펴 나간다. 그를 통해 나 예수를 증거하며 시대 복음을 펴 나간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만 전하지 말고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함으로 나 예수가 원하는 것을 전해 주어라.

<자막>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6절)

③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먼저는 육의 사람을 위해 땅에서 하는 휴거 역사를 한다. / 내가 보낸 자의 육을 통해 시대 말씀 나팔을 불게 하여 너희 육과 영을 사망권과 구시대에서 이끌어 내어 땅에서 1차 휴거 역사를 한다. 이때 너희 영혼도 변화를 이룬다. / 그다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 예수의 신령한 영체가 재림하여 변화된 영혼을 하늘나라로 휴거시키는 2차 휴거 역사를 한다.

④ <꿈으로 보여 준 계시>

(그림으로 보여 주고 그 앞에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자막)

주인 = 예수님, 과수원지기 = 선생님, 과일나무들 = 섭리인들

신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연 과일나무 = 표상자

<자막과 말씀> 내가 너희 선생에게 보인 과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나는 주인이요, 너희 선생은 과수원지기요, 과일나무들은 섭리인들이요, 신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연 과일나무는 너희 가운데 세운 표상자다.

⑤

예수님

선생



표상자 (형제 가운데 표상자)

사람들

<자막과 말씀> 표상 따라 그 심정으로 내가 보낸 자와 나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행하여라. 나 예수는 시대에 보낸 자와 표상자를 쓰고 행한다.

⑥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⑦ 예수님 인사

<자막과 말씀> 너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라. 사랑한다. 샬롬!